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위치는 전반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안내받은 시설이 아닌 제 2캠퍼스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약 3주 가량 수업을 받았는데 호텔과 어학원이 계약을 하여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컨퍼런스룸 같은곳에서 수업을 들었다. 단 전체적인 여건은 좋았지만 그룹 스터디룸이 매우 협소하여 5명이 겨우겨우 켜켜서 수업을 들었다. 규모는 생각보다 큰 편이었으며 정확히는 대학이 아니라 사설 어학원과 BPSU라는 대학이 MOU를 맺어 계약 형식으로 ESL수료증을 주는 느낌이다. 전혀 대학과는 거리가 멀고 어학원에 돈을 지불하고온 개인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솔직하게 수업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을 하지 못했다. 첫번째로 글쓰기 수업과 문법 수업이 없다. 문법은 그룹스터디 시간에 조금씩 알려주는 수업이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었던 것 같다. 글쓰기 수업이 없는 것이 정말 아쉬웠다. 두번째 수업의 커리큘럼이 학업위주가 아닌 흥미 위주의 수업이었고 한달동안 두개의 동영상만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찍으려면 수업이 끝나고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영어공부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활동이어서 왜 할까란 의구심이 들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FUN FRIDAY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주제에 맞는 소품을 준비하거나 구매하여야한다. 근데 이 소품이 평상시에는 전혀 쓸모없는 소품이라서 매주 금요일마다 새롭게 구매하고 버렸던것같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모든 활동엔 추가비용이 따로 없었다. 1. 비치리조트 -옷 등이 필요하다. 2. 트래킹 - 엄청 큰 십자가가 있는 산으로 트래킹을 간다. 운동화 필수 3. 요트투어 - 요트를 타고 수빅베이를 한바퀴 돈다. 수영은 자유라 수영하고 싶은사람은 수영복을 준비하면된다. 샤워시설이 구비되어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날씨는 우리가 공부했던 시즌이 필리핀의 우기시즌이라 비자 정말 자주, 많이온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니 다들 적응을 하는 것 같았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솔직하게 정말 안전하다. 필리핀이 위험하다 가면 총맞을 수 있다 등등의 의견들은 그 사람들이 필리핀을 와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필리핀은 안전하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평일 점호는 저녁10시 주말 점호는 12시 이다. 기숙사 시설은 굉장히 좋으며(2캠퍼스 기준) 쾌적하다. 대신 방에서 인터넷이 아예 안되고 와이파이또한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호텔 로비로 가야한다.
식사	학교식당 (V)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솔직하게 정말 밥을 잘한다. 밖에있는 한식집에서 사먹는것보다 맛있는경우도 많고 필리핀에서 나름 오래 거주했다고 생각했는데 매끼 이렇게 맛있는 한식을 먹은 경우는 전무하다고 생각된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지프니를 타고싶은 사람들이 한두명쯤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택시를 타는걸 추천한다. 지프니도 노선이 따로있고 더군다나 학원으로 가는 지프니는 없기 때문에 택시가 훨씬 좋다. 친구와 같이 나가면 생각보다 택시비가 얼마 안나온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교통비(4주 총 택시비)	약 4~5만원	매일 택시를 타고 돌아다녀서 이렇게 나온것같다.
저녁과 주말식비	약20~25만원	저녁과 주말은 거의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 보이지만 정말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서 저 정도 이다.
스타벅스커피	약6만원	4주동안 거의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기준 약3200원, 제일 비싼 음료를 마셔도 4500원이 넘지 않는다.)
기념품	약20만원	많이 나와보이지만 찰스앤 키스 가방이 세일을해서 두개를 구매했다(두개 약 12만원. 정말 싸다)
합계	약50~60만원	이돈으로 정말 풍요롭게 잘쓰고왔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학원에 상비약이 종류별로 비치되어 있지만 개인 상비약은 꼭 넉넉하게 챙겨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선은 한국이 더 싸고 품질도 우수하니 혹시모를 여분 충전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었다. 어학원의 커리큘럼은 이에 맞춰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게 짜여져 있다. 그 누구라도 영어를 좋아할수 있도록 말이다. 평소에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확실하게 영어를 좋아할것같다. 하지만 평소에 영어를 어느정도 구사할 수 있고 전공이 영어와 밀접해있다면 필리핀을 선택하는 것 보다 캐나다를 선택하는걸 추천해주고싶다. 필리핀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지만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다. 필리핀어인 따갈로그가 존재하고 여러 선생님들의 억양속에 필리핀 억양이 섞여있어서 정말 가끔은 알아듣기 힘들때도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수준또한 높은 편이며 학생들에 대한 열의는 정말 엄청나다. 사실 나는 어릴적 필리핀에 거주하였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다가 오랜기간동안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 영어를 거의 까먹은 케이스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달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자고 다짐한 것에 비하여 흥미위주의 수업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수업중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추어라 등등 수업과 관계없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며 수업의 본질을 흐리는것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감이 되었다. 혹시나 자신이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큰 고민거리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좋았다. 정말 오랜만에 푹 쉬고 힐링하는 기분을 느낀것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매주 화요일 평일 액티비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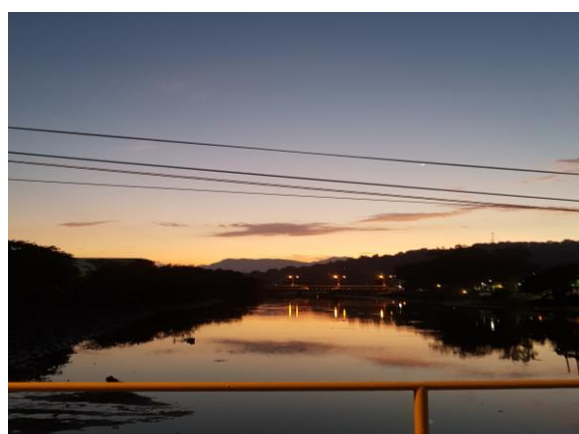
수빅 전통시장 전경



주말 액티비티 요트투어



수빅베이



하버포인트(쇼핑몰) 가는길



학원 점심식사